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 특성*

윤 은 희**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박사졸업

최 성 규***

대구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한국판 DIT (Defining Issues Test)를 적용하여 청각장애아동의 성별, 학년별, 일반학교 경험별,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청각장애학교와 일반학교에 통합 중인 초등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부가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아동 131명이다.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행동선택 및 도덕판단력은 카이제곱검증과 독립표본 t검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에서 남학생이 더 직관적이며, 학년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 에서는 장애정체성이 확립될수록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교 경험은 인습 이후의 사고 발달에 차별성을 나타낸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에서는 성별과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나 학년과 일반학교 경험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3은 6학년에 발달되며 일반학교 경험은 특히 단계 3에 차별성이 나타났다. 이로서 일반학교 경험이 도덕판단력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청각장애아동, 도덕성, DIT(Defining Issues Test)

* 이 논문은 윤은희의 2018년도 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제 1저자

*** 교신저자 (skchoi@daegu.ac.kr)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관점은 청력손실 정도에 따라 의사소통의 가능 여부와 그에 따른 교육적 성취에 초점을 둔다. 이런 특징을 가진 청각장애아동에게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주로 언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청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 동향을 분석한 윤은희와 최성규(2016)의 연구에서 전체 연구의 25%가 언어와 관련된 연구로 보고되었다. 청각장애아동이 청각의 손상으로 인해 음성 언어 발달의 지체가 나타나는 장애 아동이라 할지라도 일련의 발달과정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로서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발달한다. 청각장애아동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연구는 여러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간헐적으로나마 진행되어 온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발달심리학적 차원에서 청각장애아동의 인지발달 연구를 살펴보면 청각장애아동들은 가청아동에 비해 지능이 낮다는 Pintner(1923)의 이론을 시작으로 Myklebust (1953)의 양적으로 동일하나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이론, 그리고 Rosenstein (1961)의 두 집단은 차이가 없다는 연구로 이어진다. 그 외 Furth와 Youiss (1969)의 연구와 Vernon(1967)의 연구에서는 사회 환경적 불리함이, 그리고 Moores(1987)는 조사자들과 청각장애아동들과의 효과적이지 못한 의사소통이 청각장애아동의 인지를 열등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 말하였다. 국내에서는 권요한 (1987)의 연구와 최성규와 윤은희(2001)의 연구로 청각장애아동의 인지발달은 가청아동에 비해 지체되는 것은 사실이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 시기가 되면 가청아동의 발달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는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측면을 연구한 Kashyap(1986)와 Crowley(1982)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가청아동의 가청부모와 청각장애아동의 청각장애부모를 대상으로 양육태도에 관한 것을 비교한 것으로 두 집단의 양육태도는 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청각장애부모와 청각장애아동 간의 효과적 의사소통의 결과로 보고 예정 양상 발달도 동등한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였다(Harris, 1978; Meadow, 1969; Meadow et al., 1981; Stokoe & Battison, 1981). 국내의 최성규(1999)의 연구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법이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강우진(2011)은 사회성 발달에 청각장애 등급과 장애 출현 시기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았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연구는 인지발달이나 사회성 연구에 비해 활발한 편은 아니다. 청각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동향 분석이기는 하나 윤은희와 최성규(201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발달’ 범주에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는 한 편도 보고되지 않았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과 관련된 국외 연구에서 Nass(1964)는 8세부터 12세의 청각장애아동들에게 Piaget의 ‘일화법(逸話法)’을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킵’과 ‘길’ 이야기에서 청각장애아동들은 실수로 킵을 더 많이 깬 아동과 실제 길을 몰라 성의 없는 대답으로 길을 잃어버리게 한 아동에게 더 많은 잘못이 있다고 대답했다. DeCaro와 Emerton(1978)의 경우 Kohlberg의 도덕발달 이론을 청각장애대학생 1학년들에게 적용하였다. 이 연구로 청각장애대학생들은 기저의 도덕성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더 치중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런 결과로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가청아동들과 비교해서 다소 낮은 단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Kohlberg의 패러다임을 청각장애아동과 연관된 이야기로 수정하여 사용한 Couch(1985)의 연구 역시 가청아동들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지만 이전 연구들에 비해 도덕성 수준은 향상된 결과가 나타났다. Piaget의 조작적 개념과 도벽, 서투름, 그리고 정의에 대한 한 쌍의 이야기를 테스트 한 Markoulis와 Christoforou(1991)의 연구에서 사회-도덕 성숙도와 관련해서는 가청아동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조작적 개념은 다소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정경순(1986)은 청각장애아동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서봉연과 이주용(1963)이 작성한 질문지를 청각장애아동에게 맞게 수정하여 검사하였다. 먼저 성별의 비교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타율적 판단보다는 자율적 판단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가청아동과의 도덕성 발달 비교에서는 4~5세 정도 지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수(1987)의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각장애아동에게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성 검사지(김안중, 1982)를 사용 하였다. 검사 내용은 ‘하인즈 이야기(철수와 라디오 약)’와 ‘탈옥수’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청각장애아동들은 성별과 연령에서 도덕성 발달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단계는 1단계로서 인습 이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경숙(1994)은 청각장애를 가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행동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도구를 재구성하여 검사하였다. 이는 Kohlberg의 도덕적 판단수준을 근거로 제작한 것으로 10개의 가상적인 사건 중 5개는 가청아동들과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Rest의 DIT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여 사용한 최금식(1994)의 연구에서는 9세부터 18세 까지의 청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 성별의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의 점수가 더 높게 나왔으며 연령의 증가에 따른 도덕적 판단능력의 발달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발달과 관련된 내용은 정경순 (198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최금식(1994)이 사용한 DIT는 표준화 되기 전 검사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어휘를 요구하는 검사지이다. 이런 이유로 연구대상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용한 연구가 과연 신뢰할만한 결과인가에 대한 의문과 표준화된 검사를 통한 결과 도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윤은희와 최성규 (2018)의 연구로 이 연구에서는 청각 장애아동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한국판 DIT를 사용하여 검사하였다. 검사 결과 ‘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등의 갈등 상황에서 청각장애아동은 ‘환자의 애원’을 제외하고 가청아동과 상반된 행동선택 을 보였으며 두 집단 간 도덕판단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과 성별의 상호작용에서는 여학생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집단과 학년의 상호작용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그 외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은 일상생활과 연관 되어 있음으로 도덕성이 형성되는 시기부터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함을 최성규(1998)는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도구는 한국판 DIT로 윤은희와 최성규(2018)에 사용되었던 검사와 동일한 도구이다. DIT(Defining Issues Test)는 Rest에 의해 개발된 도구로 Piaget와 Kohlberg로 연계되는 인지발달론적 관점의 검사 도구이다. DIT는 피험자가 속해 있는 도덕적 단계를 파악하려는 측면보다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사고를 얼마나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특징을 갖는다(Rest, 1983). 또한 Kohlberg의 도덕성 측정 검사로 대표되는 도덕판단 면담검사가 가지는 주관적 검사의 한계를 객관식 검사로 전환하여 피험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였다(Rest et al., 1997; Rest et al., 1999). 국내에서 DIT에 대한 표준화 연구는 1994년에 문용린이 실시하였다. 앞서 최금식(1994)의 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DIT는 중학교 2학년 이상의 어휘 수준을 요구하는 검사지이다. 초등학생에게도 적합한 한국판 DIT가 2004년에 제작되었으며 2007년 한국판 DIT의 재 표준화 연구가 실시되었다(문용린 외, 2008; 이병희, 2004).

DIT는 완성형(full form)과 간편형(short form)으로 구분되며 이 연구에서는 간편형이 사용되었다. 간편형은 ‘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등의 갈등상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개의 문항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문항은 행동 선택과 관련된 것이며 두 번째 문항과 마지막 문항을 통해 P(%)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P(%) 점수는 Kohlberg의 인습후기에 해당하는 5단계와 6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점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나타내며 이것으로 피험자의 도덕판단력 발달수준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청각장애아동에 대한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와 한국판 DIT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아동에 관한 도덕성 연구는 가청아동과의 비교를

통해 두 집단 간 특징들로 대표된다. 그리고 청각장애아동에 관한 주된 변인은 성별과 연령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연령을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으로 제한하였다. 그 이유는 청각장애아동의 인지발달과 관련해서이다. 청각장애아동은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면 거의 모든 개념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최성규 외, 2001).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 역시 그 시기가 되면 형성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각장애아동으로 대상을 제한하였다. 성별과 연령의 기본 변인 외에 이 연구에서는 일반학교 경험의 유무와 본인의 장애관점에 따른 도덕성과의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과 관련된 정경순(1986)의 연구에서는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서 통합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학교의 경험 유무가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한 청각장애아동과 관련된 연구 들은 대부분 청력손실시기 즉 언어 습득 전, 후의 청력손실시기에 관련된 연구와 장애등급, 보장구 형태,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 부모 수어 능력 등의 변인들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변인들이 청각장애아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보장구의 획기적인 발전과 청각장애아동들이 통합 환경에 많이 흡수되어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과연 청각장애아동들이 본인에 대해 어떠한 장애관점을 가지며 그에 따른 도덕성 발달 특성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2007년에 재 표준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DIT를 이용하여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학년별, 일반학교 경험별,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이 배경변인으로 설정되었으며 배경변인에 따른 행동선택의 특성과 도덕판단력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청각장애아동의 성별, 학년별, 일반학교 경험별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에 따른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는데 있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을 분석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선정된 대상은 전국의 청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일반학교에 통합되어 있는 청각장애아동으로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다. 일반학교 경험에 따른 분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험은 제외하고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아동으로 제한하였다. 이들 중 부가장애가 있는 아동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의 배경변인별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배경변인별 특성

배경변인	청각장애아동		
	N	%	
성별	남	69	52.7
	여	62	47.3
학년별	4학년	28	21.4
	5학년	29	22.1
	6학년	39	29.8
	중학교 1학년	35	26.7
일반학교 경험별	있다	62	47.3
	없다	69	52.7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	장애인이라 생각	87	66.4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17.6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16.0
전체		131	100

2. 연구 도구

이 연구의 검사 도구는 한국판 DIT(Defining Issues Test)이다. DIT는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Rest에 의해 개발된 도덕판단력 검사이다(Rest et al, 1974). 이 검사 도구를 1994년 서울대 도덕심리연구실에서 표준화 작업을 시작으로 2004년 초등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한 한국판 DIT를 제작하였다(이병희, 2004). 한국판 DIT는 기존 검사의 갈등 상황 내용과 문항의 난이도를 대폭 수정하여 초등학교 저학년에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장희선, 2006). 2007년 2차 표준화 연구의 목적은 한국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으며 개정된 DIT의 전체 신뢰도(Cronbach α)는

.81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P(%) 점수의 신뢰도도 .61로 기존 DIT보다 다소 높게 나왔음을 보고하였다(문용린 외, 2008).

3. 연구 절차

1) 연구대상자 표집을 위한 사전 조사

인공와우나 보청기 등의 보장구를 활용한 청각장애아동들이 급증하면서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청각장애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찾기 위해 서울, 강원, 경기, 인천, 충북, 대구, 울산 등의 청각장애 학교에 협조를 의뢰하였다.

2) 연구대상학교 공문 발송

협조를 의뢰한 학교 중 부가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아동이 재학 중인 서울 (3개교), 경기(1개교), 인천 (1개교), 충북(1개교), 대구(1개교), 울산(1개교)의 학교에 협조 공문과 부모 동의서를 발송하였다. 이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부장의 협조를 받아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부모 동의서를 제출한 청각장애 아동에게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실시 방법

한국판 DIT 검사의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인 청각장애아동들에게 연구자가 구어와 수어로 검사 방법을 직접 전달하였다. 연구자는 청각장애아동과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소지자이다. 청각장애아동들은 검사지의 세 번째 문항에서 4개의 중요한 질문을 선택한 후 중요도를 표시하는 부분을 다소 어려워하였다. 구어가 익숙한 아동에게는 구어로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또한 수어가 의사소통 방법으로 적합한 아동에게는 3개의 갈등상황과 각 문항에 따른 질문을 수어로 충분히 설명하여 문해력 저하로 인한 오차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검사 시간은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4) 검사 시기

청각장애아동의 검사 시기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이며 검사 장소는 청각장애아동 해당 학교의 교실과 도서관과 시청각실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4. 자료 처리

한국판 DIT는 세 문항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행동선택에 관한 문항이며 두 번째 문항은 각 갈등상황에 12개의 질문이 제시되고 이 질문을 읽고 중요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번째 문항에서는 중요도가 표시된 12개의 질문 중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네 개를 골라 순위를 매기게 된다. 각 갈등상황에 따른 질문별 단계는 <표 2>와 같다. 순위가 매겨진 순서에 따라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4점, 둘째로 중요한 질문에는 3점, 세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2점, 네 번째로 중요한 질문은 1점이 부여된다. 3가지 이야기의 총합의 점수가 30점이 되어야 한다. 1단계에서 6단계의 점수 중 5A와 5B, 6단계의 점수를 합하면 P점수가 되고 P점수에 .3을 나누어서 원점수를 %점수로 전환하여 P(%)점수를 구한다(문용린, 2011). DIT는 ‘손으로 채점하는 방법’ 또는 ‘컴퓨터 채점 방법’을 채점 방식으로 사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손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사용되었으며 DIT를 개발한 Rest도 중학생 이상에게는 ‘손으로 채점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였다(문용린, 2011).

<표 2> 갈등상황에 따른 질문별 단계

이야기 \ 질문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남편의 고민	4	3	2	1	3	4	1	6	1	5A	3	5A
탈옥수	3	4	1	4	6	1	3	4	3	4	5A	5A
의사와 환자	3	4	1	2	5A	1	3	6	4	5B	4	5A

일반적으로 DIT를 활용한 연구는 P(%)점수를 사용하며 이는 0-95점까지 범위를 가진다. P(%)의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도덕판단력 수준은 5, 6단계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문용린, 2011).

수집된 자료의 통계 처리를 위해 통계 프로그램인 SPSS 22.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 scheffe 사후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인 성별, 학년별, 일반학교 경험별,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에 따라 ‘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등에 나타나는 행동선택 특성을 알아보았다.

1) 청각장애아동의 남편의 고민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

‘남편의 고민’에 대한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남편의 고민에 대한 배경변인별 특성 단위: 명

변인		문항		남편의 고민에 대한 배경변인별 특성							
				흠친다.		잘 모르겠다.		흠치지 않는다.		총계	%
성별	남	%	6	4.6	18	13.7	45	34.4	69	52.7	
	여	%	9	6.9	28	21.4	25	19.1	62	47.3	
	총계	%	15	11.5	46	35.1	70	53.4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8.14(df=2), p<.05$								
학년	4학년	%	0	0.0	15	11.5	13	9.9	28	21.4	
	5학년	%	9	6.9	7	5.3	13	9.9	29	22.1	
	6학년	%	6	4.6	11	8.4	22	16.8	39	29.8	
	중학교 1학년	%	0	0.0	13	9.9	22	16.8	35	26.7	
	총계	%	15	11.5	46	35.1	70	53.4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23.04(df=6), p<.01$								
일반 학교	있다	%	9	6.9	34	26.9	19	14.5	62	47.3	
	없다	%	6	4.6	12	9.2	51	38.9	69	52.7	
경험별		총계	%	15	11.5	46	35.1	70	53.4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25.45(df=2), p<.001$								
본인에 대한 장애 관점별	장애인이라 생각	%	3	2.3	29	22.1	55	42.0	87	66.4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 하다고 생각	%	12	9.2	5	3.8	6	4.6	23	17.6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	0	0.0	12	9.2	9	6.9	21	16.0	
	총계	%	15	11.5	46	35.1	70	53.4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49.95(df=4), p<.001$								

‘남편의 고민’에 대한 행동선택에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흠치지 않는다.’를 여학생 25명(19.1%)에 비하여 남학생 45명(34.4%)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아동이 28명(21.4%)으로 가장 높았으며 남학생은 ‘흠친다.’를 6명(4.6%)이 선택하여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성별에 대한 카이제곱검증은 $\chi^2=8.14(df=2)$, $p<.05$ 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두 번째로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면 6학년과 중1학년에서 ‘흠치지 않는다.’를 선택한 아동이 각각 22명(16.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학년은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 아동이 15명(11.5%)으로 가장 많았고 5학년은 ‘흠치지 않는다.’를 13명(9.9%)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학년에 대한 카이제곱검증 결과 $\chi^2=23.04(df=6)$, $p<.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반학교 경험별 특성에서는 일반학교의 경험이 없는 아동 51명(38.9%)이 ‘흠치지 않는다.’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청각장애아동 중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34명(26.9%)으로 가장 높았다. ‘남편의 고민’에 대한 일반학교 경험 유무에서의 카이제곱 검증은 $\chi^2=25.45(df=2)$,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장애관점별 특성을 살펴보면 ‘나는 장애인이라 생각한다.’는 청각장애아동 중 ‘흠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55명(4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라는 관점에서는 ‘흠친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12명(9.2%)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12명(9.2%)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고민’에 대한 본인의 장애관점별 카이제곱 검증은 $\chi^2=49.95(df=4)$, $p<.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2) 청각장애아동의 탈옥수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

‘탈옥수’에 대한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특성은 <표 4>과 같다.

<표 4> 탈옥수에 대한 배경변인별 특성 단위: 명

변인	문항		탈옥수에 대한 배경변인별 특성							
	고발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고발하면 안된다.	총계	%					
성별	남	%	30	22.9	26	19.8	13	9.9	69	52.7
	여	%	21	16.0	21	16.0	20	15.30	62	47.3
	총계	%	51	38.9	47	35.9	33	25.2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3.24(df=2)$, $p=.198$							

<표 4> 탈옥수에 대한 배경변인별 특성(계속) 단위: 명

변인		문항		탈옥수에 대한 배경변인별 특성(계속)				단위: 명		
		고발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	고발하면 안된다.	총계	%				
학년	4학년	%	5	3.8	14	10.7	9	6.9	28	21.4
	5학년	%	9	6.9	9	6.9	11	8.4	29	22.1
	6학년	%	15	11.5	15	11.5	9	6.9	39	29.8
	중학교 1학년	%	33	16.8	9	6.9	4	3.1	35	26.7
	총계	%	51	38.9	47	35.9	33	25.2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16.74(df=6), p<.05$							
일반 학교 경험별	있다	%	27	20.6	18	13.7	17	13.0	62	47.3
	없다	%	24	18.3	29	22.1	16	12.2	69	52.7
	총계	%	51	38.9	47	35.9	33	25.2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2.41(df=2), p=.299$							
본인에 대한 장애 관점별	장애인이라 생각	%	36	27.5	36	27.5	15	11.5	87	66.4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	3	2.3	11	8.4	9	6.9	23	17.6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	12	9.2	0	0.0	9	6.9	21	16.0
	총계	%	51	38.9	47	35.9	33	25.2	131	100
카이제곱검증			$\chi^2=21.62(df=4), p<.001$							

‘탈옥수’에 대한 성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31명(100%) 중 51명(38.9%)이 ‘고발해야 한다.’를 선택했으며, 이 중 남학생 30명(22.9%)이 여학생 21명(16%) 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고발하면 안된다.’를 20명(15.3%)이 선택해 두 번째 빈도를 보였다. ‘탈옥수’에 대한 집단 간 특성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년별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것은 중1학년에서 ‘고발해야 한다.’로 33명(16.8%)이 선택하였다. 반면 중1학년 중 ‘고발하면 안된다.’를 4명(3.1%)이 선택하여 가장 낮은 빈도를 보였다. 4학년은 ‘잘 모르겠다.’를 14명(10.7%)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5학년은 ‘고발하면 안된다.’를 11명(8.4%)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옥수’에 대한 학년별 카이제곱검증 결과 $\chi^2=16.74(df=6), p<.05$ 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세 번째로 ‘탈옥수’에 대한 일반학교 경험별에 관한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답한 아동이 27명(20.6%)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학교 경험이 없는 아동 중 29명(22.1%)이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탈옥수’에 대한 일반학교 경험 유무에 따른 카이제곱 검증에 따른 결과는

‘환자의 애원’에 대한 행동선택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31명 중 53명(40.5%)이 ‘들어 준다.’를 선택하였고 그 중 여학생 31명(23.7%)이 선택해 남학생보다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 들은 ‘들어주면 안된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여학생은 ‘들어주면 안된다.’를 가장 낮은 인원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hi^2=4.50(df=2)$, $p=.105$ 으로 성별간은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애원’에 대한 학년별 특성에서는 ‘들어 준다.’를 중학교 1학년에서 22명(16.8%)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6학년에서 18명(13.7%)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들어주면 안된다.’를 가장 많이 선택한 학년은 5학년으로 13명(9.9%)이 선택하였다. 이런 결과를 카이제곱 검증한 결과 $\chi^2=17.02(df=6)$, $p<.01$ 로 학년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일반학교 경험별 특성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아동의 일반학교의 경험 즉 통합교육의 경험이 있는 아동 중에서는 ‘들어 준다.’가 29명(22.1%)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고 ‘들어주면 안된다.’를 7명(5.3%)이 선택해 가장 낮게 선택되었다. 반면에 일반학교 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는 ‘들어주면 안된다.’를 32명(24.4%)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일반학교 경험 유무에 따른 카이제곱 검증은 $\chi^2=20.52(df=2)$, $p<.001$ 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애원’에 대한 본인의 장애관점별 특성은 본인이 장애인이라 생각할 경우 환자의 부탁을 ‘들어 준다’라고 답한 아동이 38명(29.0%)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는 관점에서 역시 ‘들어 준다’라는 답을 한 아동이 12명(9.2%)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잘 모르겠다.’와 ‘들어주면 안된다.’가 9명(6.9%)으로 같은 수의 아동이 응답하였다. 이 결과로 ‘환자의 애원’에 대한 본인의 장애관점별에 따른 카이제곱 검증은 $\chi^2=9.97(df=4)$, $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2.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인 성별, 학년별, 일반학교 경험별,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에 따라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을 알아보았다.

1) 성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동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성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표 6〉 청각장애아동의 성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단계	변인	N	M	SD	t 값	p
단계1	성별				.46	.647
	남학생	69	17.05	11.96		
	여학생	62	16.08	12.41	.18	.856
	남학생	69	3.48	5.81		
단계2	성별				1.11	.268
	남학생	69	22.41	9.97		
	여학생	62	24.73	13.72	1.66	.100
	남학생	69	16.67	9.89		
단계3	성별				.25	.806
	남학생	69	3.19	4.62		
단계4	성별				.25	.802
	남학생	69	7.73	7.68		
단계5A	성별				.13	.898
	남학생	69	27.58	13.06		
단계5B	성별				.32	.750
	남학생	69	27.58	13.06		
단계6	성별				.32	.750
	남학생	69	27.58	13.06		
P(%)점수	성별				.32	.750
	남학생	69	27.58	13.06		
	여학생	62	28.39	15.91		
	여학생	62	28.39	15.91		

먼저 청각장애아동의 성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단계 4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단계별 점수는 4단계를 제외하고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의 각 단계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62명 28.39로 남학생 69명 27.58 보다 P(%)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년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동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학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판단력의 학년에 따른 차이는 <표 7>과 같다.

〈표 7〉 청각장애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단계	변인	N	M	SD	F 값	p (scheffe)	
단계1	학년	4학년	28	14.40	12.86	.63	.594
		5학년	29	18.74	12.83		
		6학년	39	17.01	12.30		
		중학교1학년	35	16.10	10.89		
		계	131	16.59	12.14		

<표 7> 청각장애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계속)

단계	변인	N	M	SD	F 값	P (scheffe)	
단계2	학년	4학년	28	3.45	5.01	.93	.426
		5학년	29	4.83	6.34		
		6학년	39	2.56	4.80		
		중학교1학년	35	3.71	6.04		
		계	131	3.56	5.55		
단계3	학년	4학년(a)	28	23.06	12.17	3.02	.032 (c>d)
		5학년(b)	29	25.52	10.51		
		6학년(c)	39	26.50	10.95		
		중학교1학년(d)	35	18.86	12.76		
		계	131	23.51	11.90		
단계4	학년	4학년	28	28.21	11.81	2.34	.077
		5학년	29	25.52	11.62		
		6학년	39	25.90	9.35		
		중학교1학년	35	31.81	11.75		
		계	131	27.89	11.24		
단계5A	학년	4학년	28	17.26	12.51	.82	.487
		5학년	29	16.09	10.04		
		6학년	39	15.21	9.14		
		중학교1학년	35	19.14	13.09		
		계	131	16.90	11.22		
단계5B	학년	4학년	28	4.05	4.92	1.19	.318
		5학년	29	1.95	3.51		
		6학년	39	3.59	4.68		
		중학교1학년	35	3.43	4.68		
		계	131	3.28	4.51		
단계6	학년	4학년	28	9.52	8.92	2.15	.097
		5학년	29	5.88	1.09		
		6학년	39	9.23	8.29		
		중학교1학년	35	6.95	6.83		
		계	131	7.81	7.69		
P(%)점수	학년	4학년	28	30.82	17.34	1.52	.214
		5학년	29	23.31	11.93		
		6학년	39	28.03	11.16		
		중학교1학년	35	29.46	16.54		
		계	131	27.96	14.43		

청각장애아동의 학년에 따른 도덕판단력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단계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단계 3에서는 학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3에서는 6학년이 중1학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에서 P(%)점수를 살펴보면 초등 4학년이 30.82, 5학년이 23.31, 6학년이 28.03, 중1학년이 29.46으로 나타났다. 4학년을 제외하고 P(%)점수가 학년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일반학교 경험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동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일반학교 경험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청각장애 아동의 일반학교 경험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차이는 <표 8>과 같다.

<표 8> 청각장애아동의 일반학교 경험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단계	변인	N	M	SD	t 값	p
단계1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13.28	3.05	.003
	없다	69	19.57	12.60		
단계2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3.60	.08	.938
	없다	69	3.53	5.30		
단계3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25.91	2.22	.028
	없다	69	21.35	11.75		
단계4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28.17	.27	.785
	없다	69	27.63	11.91		
단계5A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18.33	1.40	.165
	없다	69	15.60	9.84		
단계5B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2.69	1.44	.154
	없다	69	3.82	4.76		
단계6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7.04	1.09	.280
	없다	69	8.50	8.05		
P(%)점수	일반학교경험	있다	62	28.03	.05	.958
	없다	69	27.90	12.92		

청각장애아동의 일반학교 경험별에 따른 단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단계 1에서는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단계 3에서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단계 1에서는 일반학교의 경험이 없는 아동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으며 단계 3에서는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아동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다.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아동은 전체 131명 중 62명으로 28.03으로 나타났고 경험이 없는 아동은 69명으로 27.90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아동이 P(%)점수는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4)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청각장애아동의 도덕판단력에 대한 본인의 장애관점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청각장애아동의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에 대한 차이는 <표 9>와 같다.

<표 9> 청각장애아동의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

단계	변인		N	M	SD	F 값	p
단계1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17.09	12.26	.25	.777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16.09	12.17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15.08	12.00		
단계2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2.99	5.08	2.66	.074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5.94	6.66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3.33	5.68		
단계3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22.99	12.27	.32	.730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23.91	2.10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25.24	12.50		
단계4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28.54	10.21	.49	.616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26.09	13.55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27.14	12.84		
단계5A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16.82	11.94	.01	.993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16.96	7.17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17.14	12.17		
단계5B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3.49	4.49	.28	.756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2.75	4.46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3.02	4.82		
단계6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7.43	7.27	.39	.677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8.12	8.46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9.05	8.70		
P(%) 점수	장애관점	장애인이라 생각	87	27.71	14.32	.10	.908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고 생각	23	27.74	12.77		
		장애인이 아니라고 생각	21	29.24	17.02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과 관련된 변인에서는 각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31명 중 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아동이 8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인이 아니지만 불편하다.’는 아동이 23명,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아동이 21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P(%)점수를 보면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과 관련된 변인 역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에서 ‘남편의 고민’은 4가지 배경변인에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으며 ‘탈옥수’는 학년과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환자의 애원’은 성별을 제외한 학년, 일반학교 경험,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에서는 성별과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년에서는 단계 3이, 일반학교 경험에서는 단계 1과 단계 3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한국판 DIT를 적용하여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논의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1. 논의

첫 번째 논의는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에 관한 것이다. 청각장애아동의 ‘남편의 고민’, ‘탈옥수’, ‘환자의 애원’의 행동 선택에 관한 검사에서 배경변인은 성별, 학년, 일반학교 경험,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 등이다. 배경변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대한 세 가지 갈등상황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편의 고민’을 제외하고는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편의 고민’과 ‘탈옥수’의 경우 ‘흠치지 않는다.’와 ‘고발해야 한다.’를 남학생이 더 많이 선택하였고 ‘환자의 애원’에서는 ‘들어 준다.’를 여학생이 더 많이 선택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윤은희와 최성규(2018)의 연구에서 제시된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적 판단은 추론보다는 직관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좀 더 직관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직관의 즉시성은 시각화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각적 우위에 있는 청각장애아동들은 추론보다는 직관이 더 발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과 중심의 행동선택으로 미루어 보아 청각장애 아동은 직관에 더 의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청각장애아동 내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행동선택의 결과로 보아 남학생이 더 직관적이라 이해할 수 있겠다.

학년별에서는 세 가지 갈등상황 모두 중학교 1학년이 성별에서 나타난 행동과 같은 선택을 하였으며 '남편의 고민'에서는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같은 비율로 동일 행동을 선택하였다. 즉 학년이 상향될수록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준법성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결과가 연령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인지 교육의 양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결과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반학교 경험별과 관련해서 '환자의 애원'의 경우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아동은 '들어 준다.'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들어준다.'는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냐와 관련된 것(문용린, 2000; 이종원, 2007)으로 일반학교의 경험은 인습 이후의 사고 발달에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학교의 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 '들어주면 안된다.'를 가장 많은 빈도로 선택해 이들에게 좀 더 폭 넓은 경험을 제공하고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 특성에서는 본인이 장애인이라 생각하는 청각장애아동들이 '흠치지 않는다.'와 '고발해야 한다.' 그리고 '들어 준다.'를 선택하였다. 이런 결과는 학년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같은 결과로 장애정체성이 확립될수록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준법성이 강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두 번째로 논의될 부분은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에 관한 것이다.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에 관한 배경변인 역시 행동선택과 동일한 성별, 학년, 일반학교 경험,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 등이다.

먼저 성별에 따른 도덕판단력 특성을 살펴보면 단계 1에서 단계 6까지의 남녀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P(%)점수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경순(1986), 김종수(1987), 그리고 최금식(199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문용린 외, 2008). 가청아동의 도덕성을 연구한 박종철 등(2010)의 연구와 최성희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아동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Gilligan(1982, 1996)은 DIT가 원리중심 도덕판단을 측정하는 도구이므로 여성의 배려지향적인 도덕판단력 의 성격상 남성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가청아동과 청각장애 아동의 연구결과는 Gilligan의 주장과 상반된다. 청각장애아동 역시 남녀의 점수 차이에서 여학생이 우세하게 나타나지만 성차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비록 성차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청각장애아동도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학년에서의 도덕판단력 특성은 단계 3을 제외하고는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3은 중학교 1학년에 비해 6학년 청각장애아동이 훨씬 더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 3은 대인적 동조로서의 도덕성으로 신중하고 친절하면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이 서로 인식하고 있는 단계에 속한다(최태혁, 2011). 이런 결과로 보아 6학년 정도에 이르면 단계 3에 해당하는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학년별 P(%)점수 평균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종수 (1987)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5학년부터 평균 점수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율적 판단이 상승하는 결과를 보인 정경순(1986)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변화로 볼 때 학년이 증가하면서 높은 단계의 사고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각장애아동에게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것은 단계 4이다. 단계 4는 법과 사회질서의 의무로서 도덕성으로 단계 3은 상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긍정적인 인간관계 형성에 초점을 둔다면 단계 4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사람들 사이의 기대들이 조정될 수 있게 되는 단계이다(최태혁, 2011). 앞서 행동선택의 결과에서 청각장애아동들이 선택한 행동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준법성에 관련된 것들이다. 청각장애아동들이 단계 4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과 행동선택의 결과가 무관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Decaro와 Emerton (1978)의 연구 역시 대다수의 청각장애 대학생들이 기저의 도덕성 원리에 대한 이해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ecaro와 Emerton(1978)연구 결과를 통해 청각장애아동들은 규범을 준수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특징이 나타나며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음으로 청각장애아동의 일반학교 경험에서 도덕판단력 특성은 단계 1과 단계 3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단계 1에서는 일반학교의 경험이 없는 청각 장애아동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단계 3에서는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청각장애아동의 평균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로 청각장애아동은 단계 1에 해당하는 개념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학교의 경험은 단계 3의 발달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에서 일반학교 경험에 대한 변인은 일반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은 제외하고 일반학교에서 2년 이상 통합교육을 받은 청각장애아동으로 제한였다. 즉 일반 초등학교에서 2년 이상의 통합 경험은 단계 3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인습 이후에 해당하는 P(%)점수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에 통합된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징을 보고자 한 박경란과 신은영(2018)의 연구에서도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지향행동은 정상 범주에 속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Huber와 Kipman(2011)의 연구 역시 청각장애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정신 건강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경순(1986)은 도덕성 발달을 위해 통합 환경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학교의 경험은 도덕판단력 형성에 부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나타났고 사회·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뒷받침해 준다.

마지막으로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에서는 각 단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행동선택에서는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P(%)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관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반대로 '장애인이라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P(%)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다.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 해석의 어려움은 따르지만 본인이 장애인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좀 더 인습이후의 사고에 가까운 유연한 사고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결론

한국판 DIT를 적용하여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아동의 갈등상황에 대한 배경변인별 행동선택 특성에서 학년과 본인의 장애관점은 모든 갈등상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성별은 '남편의 고민'에서, 일반학교 경험은 '남편의 고민'과 '환자의 애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서 행동선택의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는 좀 더 직관적 특징을 가지며 학년별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별 특성에서도 본인의 장애정체성이 확립될수록 법을 준수하고 사회의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학교의 경험은 인습 이후의 사고 발달에 차별성을 나타낸다.

둘째, 청각장애아동의 배경변인별 도덕판단력 발달 특성에서는 성별과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학년에서는 단계 3이, 일반학교 경험에서는 단계 1과 단계 3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덕판단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에서의 도덕판단력 특성은 6학년 정도가 되면 단계 3에 해당하는 발달이 이루어진다. 학년과 단계 4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난 단계이다. 이는 법과 규범을 중시하는 단계로서 청각장애아동이 선택한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 청각장애아동의 일반학교 경험에서 단계 1은 일반학교 경험이 없는 청각장애아동에게, 단계 3은 일반학교 경험이 있는 청각장애아동에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인습이후단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판단력에 대한 본인에 대한

장애관점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특성을 보고자 한 연구이다. 지능검사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덕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 중 성별과 학년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도덕판단력 점수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검사와 병행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학년별 변인 분석 시 생물학적 연령 증가로 인한 결과인지, 교육 기간의 영향인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셋째, DIT를 개발한 Rest의 4구성요소에는 인지적 측면과 정서와 행동의 측면까지 포함되어 있다. 도덕적 판단 외에 도덕적 민감성과 도덕적 동기, 도덕적 품성 및 실행력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아동들에 대한 도덕성 연구도 도덕적 판단에 국한되어 있었다.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의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우진 (2011). 청각장애청소년이 갖는 대인관계성향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특수 아동교육 연구**, 13(3), 143-161.
- 권요한 (1987). 농아동의 인지적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안중 (1982). **한국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중수 (1987). 농학생의 도덕성 발달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1994). **한국청소년의 도덕성발달진단을 위한 연구-도덕판단력 진단검사(DIT)를 위한 표준화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 문용린 (2000).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 서울: 아카넷.
- 문용린 (2011). **한국인의 도덕성 발달 진단**. 파주: 집문당.
- 문용린, 김민강, 엄채운 (2008). 한국판 도덕판단력검사(KDIT)-세 가지 지수의 타당도 비교. **교육심리연구**, 22(4), 783-800.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원현주 (2008). 한국인의 도덕판단력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교육심리연구**, 22(1), 281-299.
- 박경란, 신은영 (2018). 일반학급에 통합된 청각장애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9(1), 99-119.
- 박종철, 서진희, 장성민 (2010). 도덕성 발달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분석. **교육문제연구**, 15(1), 25-41.
- 서봉연, 이주용 (1963). **도덕개념의 발달에 관한 연구**. 서울: 배영사.

- 윤경숙 (1994). 고등학교 2학년 농학생과 정상학생의 도덕판단 비교 연구: 농학생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교육 환경 구성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은희, 최성규 (2016). 국내 청각장애 청소년 관련 연구 동향 분석: 2006년~2015년의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5(3), 75-108.
- 윤은희, 최성규 (2018). 한국판 DIT를 통한 청각장애아동과 가청아동 간의 도덕성 발달 특성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53(2), 53-75.
- 이병희 (2004). 한국판 초등용 DIT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원 (2007).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 **철학탐구**, 21, 155-187. 심시
- 장희선 (2006). 도덕판단력검사(DIT)의 초등학생 이해도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순 (1986). 농학생의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금식 (1994). 농아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조사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규 (1998). 청각장애아동의 도덕성 발달에 기초한 생활지도 방안. **난청과 언어장애**, 21(2), 3-20.
- 최성규 (1999). 청각장애아 문화와 사고: 청각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정에 기초하여. **한국수어학회**, 1, 8-30.
- 최성규, 윤은희 (2001). 청각장애아동과 건청아동의 조작형태 특성에 기초한 인지발달 비교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4), 147-163.
- 최성희, 김중연, 윤영준 (2010). DIT 측정도구를 활용한 이동의 도덕성 발달. **교육문제연구**, 15(1), 141-158.
- 최태혁 (2011). 중학생의 도덕성 발달과 학습태도 및 사회성의 관계 연구: 도덕판단력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Couch, C. G. (1985). A test of Kohlberg's theory: The development of moral reasoning in deaf and hearing individual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Crowley, M., Keane, K., & Needharn, C. (1982). Fathers: The foreign parent.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7, 38-40.
- DeCaro, P., & Emerton, R. G. (1978). *A cognitive-developmental investigation of moral reasoning in a deaf population*. Paper presented to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eetings.
- Furth, H., & Youniss, J. (1969). Thinking in deaf adolescents, language and formal opera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2, 195-202.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ce vo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1996). *Minding women: Reshaping the education real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arris, R. (1978). The relationship of impulse control to parent's hearing status, manual communic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deaf childre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3, 52-67.

- Huber, M., & Kipman, U. (2011). The mental health of deaf adolescents with cochlear implants compared to their hearing peers. *International Journal of Audiology, 50*, 146-154.
- Kashyap, L. (1986). The family adjustment to their hearing impaired child. *Indian Journal of Social Work, 47*, 31-37.
- Markoulis, D., & Christoforou, M. (1991). Socio-moral reasoning in congenital deaf children as a function of cognitive maturi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1), 79-93.
- Meadow, K. (1969). Self image, family climate, and deafness. *Social Forces, 47*, 428-438.
- Meadow, K., Greenberg, M., Erting, C., & Carmichael, H. (1981). Interactions of deaf mothers and deaf preschool children: Comparisons with three other groups of deaf and hearing dyads.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6*, 454-468.
- Moores, D. (1987). *Educating the deaf: Psychology, principles, and practices (3rd ed)*. Boston, MA: Houghton Mifflin.
- Myklebust, H. E. (1953). Towards a new understanding of the deaf child. *American Annals of the Deaf, 98*, 345-357.
- Nass, M. L. (1964). The development of conscience: A comparison of moral judgments of deaf and heari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35*, 1073-1080.
- Pintner, R. (1923). *Intelligence testing: Method and results*. New York: Holt.
- Rest, J. R. (1983). Morality. In J. H. Flavell & Ellen M. Markman.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Cognitive development*, Vol. 3. N.Y.: John Wiley & Sons.
- Rest, J. R., Cooper, D., Coder, R., Masanz, J., & Anderson, D. (1974). Judging the important issues in moral dilemmas: an objective measure of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0*, 491-501.
- Rest, J. R., Narvåez, D., Thoma, S. J., & Bebeau, M. (1999). DIT2: Devising and testing a revised instrument of moral judg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1*, 644-659.
- Rest, J. R., Thoma, S. J., Narvåez, D., & Bebeau, M. J. (1997). Alchemy and beyond: Indexing the Defining Issues Tes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 498-507.
- Rosenstein, J. (1961). Perception, cognition and language in deaf children. *Exceptional Children, 27*, 276-284.
- Stokoe, W., & Battison, R. (1981). Sign language, mental health, and satisfactory interaction. In L. Stein, E. Mindel, & T. Jabaley (Eds.), *Deafness and mental health* (pp. 179-194). New York: Grune & Stratton.
- Vernon, M. (1967). Relationship of language to the thinking process. *Archives of Genetic Psychiatry, 16*, 325-333.

Mor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hearing-impaired children

Yun, Eun-Hee

Daegu University

Choi, Sung-Kyu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oral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according to their gender, grade, general school experience, and disability point of view by applying DIT(Defining Issues Test) fit for Korea.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31 children with a hearing impairment who were integrated into general school and deaf and hearing-impaired schools in the 4th, 5th, 6th grade, and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his research does not include students who have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 Behavioral selection and moral judgment according to background variables of hearing - impaired children were analyzed by Chi - Square test, T - test, and one - way ANOV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behavioral selection characteristics of background variables on the conflict situation of hearing impaired children as the age of the grade increases, as the disability identity is established,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and obey the norms of the society becomes more stronger. In addition, general school experience shows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cogitation post conventional. Secon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nder and disability perspectives on the background developmental moral judgment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However, grade and general school experience were significant. Stage 3 developed in grade 6, and experience in general school showed particularity in stage 3. This suggests that general school experience has an impact on moral judgment.

Key Words : children with hearing impairment, morality, DIT

논문 접수: 2018. 11. 12 심사 시작: 2018. 11. 12 게재 확정: 2018. 12. 10